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04개 단체)
 (담당: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 02-723-0808 pspdin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포스코강판에 MEHL과의 협력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날 짜 2021. 05. 26. (총 2 쪽)

보 도 자 료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협력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1.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협력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16일 협력관계 종료 발표 당시 포스코강판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2.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MEHL 보유 지분 30%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요청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협력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협력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이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3.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강판과 MEHL의 협력관계 종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공개질의서

포스코강판(POSCO C&C)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강판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1. 포스코강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지난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관계 종료를 결정했다는 귀사의 발표 이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미얀마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은 양곤에 위치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단은 **MEHL**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만약 귀사가 **MEHL**과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됩니다. 귀사는 **MEHL**에 제공되는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